

[보도자료]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신선식품도 로켓배송 전국 영세 중소상공인 새 성장 동력

2024. 1. 18.



쿠팡 로켓그로스를 이용하는 농업회사법인(주)나무컴퍼니 강신정 대표 농부

- 쌀/잡곡류를 시작으로 중소상공인 비중 높은 신선식품 로켓그로스 도입
- 상품 1개도 입고할 수 있어 매출 적은 영세 업체도 로켓배송 이용 가능
- 로켓배송 인프라 활용 중소상공인 계속 늘어나 동반 성장 효과 극대화

2024. 01. 18. 서울 -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중소 판매자들의 제품들이 앞으로 로켓배송된다. 일반 생활필수품, 공산품, 패션잡화 등을 시작으로 로켓그로스를 론칭한지 10개월만에 일부 신선식품까지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선식품을 파는 전국 농·어가를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팡은 18일 로켓그로스에 일부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던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신선식품 로켓배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쌀/잡곡류를 시작으로 올 1분기까지 냉장·냉동 식품을 제외한 견과/견과류, 건/수산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선식품 판매자들은 일반 공산품이나 생필품과 달리, 영세한 중소 영농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쌀,현미 등 잡곡류와 수산물 건어물 같은 상품은 대부분 지역의 작은 정미소나 논밭을 운영하는 농업·어업법인 등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택배 운영 인력이 부족하고, 자체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쿠팡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함께 지난해 3월 론칭한 로켓그로스는 CFS의 물류창고에 제품을 입고만 하면 제품의 보관, 포장, 배송도 모두 CFS가 맡아서 하고, 심지어 교환, 반품, 고객응대도 로켓그로스가 맡아서 하는 등, 중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다. 특히 소량, 심지어 상품 1개도 입고할 수 있고, 가입부터 입고, 주문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중소상공인에게 친화적이다.

이달 처음 로켓그로스에 입점한 '명성정미소' 이건호 대표는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거의 온라인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 배송과 CS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었다"며 "로켓그로스 입점을 계기로 배송이나 CS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고 연매출 40억에서 80억으로 두배가 되었는데, 로켓그로스 입점이 또 한번의 성장 모멘텀이 될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에 위치한 명성정미소는 이견호 대표를 포함한 직원이 4명인 작은 정미소다.

진주에서 바나둬쌀 농가를 운영하는 ‘진주탐라’ 진태효 씨는 “로켓그로스 론칭 시기부터 입점하고 싶었는데 이번 신선 카테고리 확장으로 드디어 입점하게 됐다”며 “혼자 농사, 마케팅, 판매까지 담당하는 농업인 입장에서 로켓그로스 입점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씨는 인슐린 대체 역할을 하는 바나둬 성분이 포함된 바나둬쌀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다. 생산한 쌀은 전량 온라인으로만 유통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된다. 그는 “진주탐라처럼 연매출 1억 미만의 작은 업체에게는 로켓배송이 가능해지면 판로가 크게 확장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선식품 카테고리 확장으로 로켓그로스 이용 중소상공인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상반기 본격 론칭한 로켓그로스 이용 중소상공인은 1만2000명 이상으로 로켓그로스 판매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3 쿠팡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에 입점한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수는 2023년 상반기 21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약 15만 7000명)과 비교해 33% 늘어난 수치다. 2015년(약 1만 2000명)과 비교하면 17배(1630%) 경총 뛰었다. 이들의 총 거래금액은 9조1800억원(2022년 기준)으로, 2019년(4조108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소상공인 거래금액은 비서울 지역에서 72%가 발생했다. 제주·울산·충북·경북 등 비서울 지역 소상공인 거래금액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과 비교해 2020년과 비교해 2022년 약 2배 높았다. 전국의 농가와 어가가 위치한 곳은 대부분 지역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소멸과 저출산 어려움을 겪는 곳만큼 로켓그로스의 신선식품 카테고리 확대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로켓그로스 카테고리 확장으로 인해 쿠팡이 수년간의 투자로 만든 차별화된 물류인프라를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로켓그로스 서비스 확장뿐 아니라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